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Generational Comparisons of Family Values and Family Life Culture  
with Respect to Family Ritual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 선 화  
부교수 진 미 정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un Wha Ok

Associate Professor : Meejung C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had two goals: 1) to explor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raditional family rituals and 2)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values and family rituals. Using survey data from 500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60s, we classified three generations: 1) 1941-1950 birth cohort (aged 59-68), 2) 1951-1970 birth cohort (aged 39-58), and 3) 1971 and later cohort (aged 38 or less). These generations represented post-colonialism, modernization, and the information era in Korea, respectivel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birth-related traditional family rituals had been maintained across the generations. Ancestor worship was less likely to be observed by later generations. Further, the way in which family values was associated with family rituals differed across the generations, indicating that traditional family values had different influences on everyday family life culture across generations.

주제어(Key Words) : 가족가치관(family values), 가족생활문화(family life culture), 가족의례(family ritual), 세대(generations)

Corresponding Author : 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1,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454 Fax: +82-2-871-2506 E-mail: mchin@snu.ac.kr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및 다문화생활교육센터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I. 서론

생활문화란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한 사회가 공유하는 상징과 가치 체계를 통해 세대를 통해 계승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의·식·주의 가족생활이 영위되는 장에서 관찰될 수 있다. 가족의 생활문화는 생활과학의 중요한 연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한국인의 가족가치나 한국가족의 특성을 비교 문화적으로 검토한 연구들(김경신, 2006; 옥선화, 남영주, 성미애, 신기영, 2001)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국가족이 전통적으로 부계가족 중심의 편제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질서, 성역할 분리, 그리고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가족주의나 가족가치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문화 중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최근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면서 역설적으로 한국가족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문화사회라는 말에는 우리 전통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생활문화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깊이 성찰할 계기가 없었던 탓에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가족의 생활문화가 어떻게 유지되거나 혹은 변화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가족의 생활문화의 변화 양상을 세대 별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족가치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가족의 생활문화는 생활영역 전체를 포괄하므로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 출산, 제사, 명절 등과 같은 가족의례 관련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례는 전통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시에 상업주의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특성을 갖는다(옥선화, 2005). 가족의례와 관련된 생활양식이 세대 별로 어떻게 다른지 혹은 유사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가족의 생활문화의 현주소를 부분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문화가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때,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가족가치관과 생활양

식을 반영하는 가족의례는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가족의례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서 중요시하는 부계가족의 영속성과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가족가치관은 가족의례와 관련된 생활문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비교 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매우 강한 가족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지만(은기수, 2006), 세대 별로 비교해보면 그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경신, 1998; 은기수, 2006). 그렇다면 가족의례와 관련된 전통적인 생활문화도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가족가치관과 가족의례의 연관성이 세대마다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계가족 중심의 의례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에서는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의 결정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의례를 준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세대에서는 가족가치관에 따라 의례에 대한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례를 선택할 수 있는 세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의례 역시 규범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례 관련 생활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가치관이 가족의 생활문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이 가족의례라는 생활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생활문화가 유지, 변화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가 확대될수록 우리 생활문화의 현주소를 아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존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의례 준수 경험과 가족가치관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세대 별로 가족의례 준수 경험은 가족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한국가족의 가족의례

생활문화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 또는 가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특성이다(옥선화, 2005).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한 사회가 공유하는 상징과 가치 체계를 통해 세대를 통해 계승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가족의 삶의 장, 즉 가족을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의식주생활을 공

유하는 삶의 장에 반영되어있다. 생활문화 중에서 가족의례는 가족구성원의 혼인, 출산, 사망 등과 관련된 공식적인 의례나 통과의례(通過儀禮)를 주로 지칭하지만, 가족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 의례들도 포함한다. 가족구성원들의 첫 생일인 돌이나 60번째 생일인 환갑이 가족의례가 되는 것처럼 매년 맞이하는 생일도 가족의례가 될 수 있다. 선조를 기리는 제례가 가족의례가 되는 것처럼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가족의 일상 의례가 되며 생활문화를 구성한다.

동시대 한국가족이 어떤 가족의례를 기념하며 어떤 생활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별로 이루어진 바 없다. 가족의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전통사회에 어떤 의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있지만, 이는 대체로 조선시대나 근대초기를 배경으로 한다.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대한 민하영과 유안진의 몇 편의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외적이며 독보적이다. 민하영과 유안진은 산업화 세대인 어머니세대(1966-67년 출생코호트)와 해방 전후 세대인 할머니세대(1938-39년 출생코호트)의 출산풍속과 출생의례를 비교하였고(유안진, 민하영, 2000; 민하영, 유안진, 2003a), 한국·홍콩·미국의 어머니 및 할머니 세대 의례를 비교 문화적으로 대조하였다(민하영, 유안진, 2003b). 이 연구들은 한국의 전통양육방식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체계화한 유안진의 연구(1994) 계보를 이으면서, 그 후세대에서 지켜지는 전통과 풍속을 정리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의 일련의 논문들에 따르면, 태몽, 임신 중 상가(喪家) 출입 금하기, 산일(産日)이 가까워질 때 목욕하기 등의 출산 풍속은 세대에 관계없이 지배적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선호나 출산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들은 세대가 낮아질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과 관련된 한국문화는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도 한국이 홍콩에 비해 남아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한국만의 고유한 생활문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한국가족의 가족가치관

넓은 의미에서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이며, 가족에 관한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이다(박혜인, 1990). 가족가치관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므로 다시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김경신(1998, 2006)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의식(효), 가족주의로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옥선화, 성미애와 신기영(2000)은 가족주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보상적, 비용적 자녀관),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

진 바와 같이, 한국인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제도적 속성이 매우 뚜렷하다.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부계가족 중심이며,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문)을 우선시하고, 가장권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나 부부관계가 구성되고, 남녀 간의 역할 분리가 엄격하다. 다시 말해 가족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나 정서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문화적 원리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한국인의 생활문화 속에 침투되어 있지만 개인에게 내면화된 수준은 거주지역이나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옥선화 외(2000)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는 농촌 거주자에 비해 가족주의 가치에 찬성하는 정도가 낮고, 비용적 자녀관의 수준은 더 높았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며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뿐 아니라 생활문화의 전통을 공유하는 재외국민들에게서도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발견된다. 한국여성과 조선족여성을 비교한 김경신(2006)의 연구에서는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여성들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사의무, 가부장권 존중, 부계가족 중심 등의 태도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선화 외(2001)은 30대 이상의 재미교포들의 가족가치관을 연구한 바 있는데, 재미교포들은 아들선호, 장남 부양 등의 부계가족의 영속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친족 중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재미한인여성과 한국여성을 비교 연구한 김경신(2010)의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재미한인여성들이 한국여성에 비해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 위계의식이나 가부장의식에 있어서는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가족가치관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하위영역 별로 다르게 분화되고 발달함을 알 수 있다.

## 3. 세대 구성과 가족가치관 변화

가족가치관은 정치적 태도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가치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급속하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은기수, 2006). 동시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족가치관의 세대 별 비교를 통해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김경신, 1998; 옥선화 외, 2001; 은기수, 2006). 1998년 당시 10대 후반의 청소년 세대(중고등 학생), 40대 중년기 세대, 60대 이상의 노년기 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비교한 김경신(1998)은 효 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세대 간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세대가 낮아질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옥선화 외(2001)의 연구에서도 30대의 재미교포들에 비해

60대의 재미교포들의 가족주의 가치관 점수가 더 높아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은기수(2006)의 연구에서도 34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35세 이상의 기성세대들에 비해 동거 및 혼외 출산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가치관이 덜 전통적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세대 구분은 조금씩 다르다. 세대라는 개념은 친척계보상의 위치, 출생코호트, 생애주기 단계, 연령집단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세대를 연령집단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그러나 세대의 동질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코호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박재홍, 2001)”이라는 세대의 정의가 보다 유효할 것이다. 한 세대가 동질적인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소유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 때문이다. 경험의 성층화란 “생애의 초기, 즉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이후 생애단계의 경험들에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프리즈의 역할을 하며, 이후의 경험들은 초기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특정한 의미와 형태를 부여받는 변증법적 결과, 특정한 의식이 형성되는 것(만하임, 1952, 박재홍, 2001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20대, 30대, 40대 등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보다 세대가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역사적 경계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재홍(2008, 2009)은 현존하는 한국의 인구를 1930년대 말과 1970년경의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식민지/전쟁경험 세대(1940년 이전 출생), 산업화/민주화 세대(1941-1970년 출생), 탈냉전/정보화 세대(1971년 이후 출생)로 크게 구분한 바 있다. 이렇게 구분된 세대는 각각 동질성의 계승과 이질성의 갈등을 통해 사회변동을 추동한다.

박재홍(2008)의 연구에서 확연히 비교된 바와 같이,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성역할 분리, 부계가족 중심의 가족질서에 대하여 식민지/전쟁경험 세대는 산업화/민주화 세대에 비해, 산업화/민주화 세대는 정보화 세대에 비해 더 유교주의적이고 전통적이다. 출산기피, 혼전동거, 이혼 등에 대한 거부감은 높은 세대에서 더 크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공·사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낮은 세대에서 더 높았다. 부계 계승, 출가외인 의식, 가족주의 성향도 낮은 세대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더 낮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작동원리였던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광범위한 사회변화를 추동

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생활문화도 낮은 세대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례와 관습이 세대에 걸쳐 계승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는 박재홍의 세대 구분을 참조하여 가족의례와 관련된 일상적 생활문화의 세대 계승 여부를 살펴보고, 가족가치관이 생활문화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방법과 내용

한국가족의 생활문화와 가족가치관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의 기혼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시 25개구를 4개 권역(강북동/강북서/강남동/강남서)으로 나눈 후 연령, 성별을 균등할당하여 남녀 250명 총 500명을 조사하였다. 2009년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양호도를 검토한 후, 지시문 일부를 수정하여 본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9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 3주간 실시하였다<sup>1)</sup>.

가족의례 관련 생활문화는 관혼상제의 통과의례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의례를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및 양육, 제사, 명절 등의 가족의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출산 및 양육 관련 의례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하여 질문하였다. 가족가치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제1차 전국가족실태조사(2005)에서 사용된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태도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우선주의, 부계가족 중심, 전통적 성역할 분리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를 통해 가부장제가족 중심성을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 시 가부장제가족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를 전통적 가족가치관이라고 보았다. 가족가치관 문항은 5점 리커트형의 10개 문항(범위 10-50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 알파 계수는 .66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을 조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으로 조사하여 세대 구분 변수로 활용하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학교 졸업 이상까지 4개의 서열범주로 측정하되 분석에서는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성장지역은 16세 때 거주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인지를 조사하여

1)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2009년에 실시한 “한국가족의 생활문화 실태조사”의 일부분이다.

〈표 1〉 가족의례 관련 생활문화와 가족가치관 조사 내용

영역	세부 영역	가족 의례 생활문화 내용
가족의례	출산과 양육	태교 경험 유무 산후 미역국 섭취 유무 삼칠일 경험 유무 백일 경험 유무 돌잔치 경험 유무
	제사	제사 여부 제사의 범위(조부모, 증조부모, 4대조, 시제)
	명절	설이나 추석을 보내는 방법 - 큰집에 모든 친척들이 모임 - 우리식구들만 모임
가족 가치관	성역할 분담, 가족우선주의, 가장 및 부권 강조 등 10개 문항	

읍면지역인 경우 농어촌으로, 중소도시나 대도시는 도시지역으로 조작화하였다.

### 2. 분석 방법

가족가치관 및 가족의례 준수 경험의 세대 별 비교인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사승검증 및 세대1을 준거집단으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세대 별로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 준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방법과 교육수준, 성장지역, 종교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앞서 설명하였듯이 세대 별 비교를 위하여 박재홍(2008, 2009)의 세대 구분을 참조하여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 세대1은 1941-1950년 출생코호트(2009년 현재 만 59-68세), 세대2는 1951-1970년대 출생코호트(만 39-58세), 세대3은 1971년 이후 출생코호트(만 38세 이하)이다.

〈표 2〉에 요약되어있듯이 각 세대들은 연령 뿐 아니라 평균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의 분포가 서로 다르다. 세대1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약 15%, 중학교 졸업자 비율이 약 24%에 달하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6%에 불과하지만, 세대2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없고, 중학교 졸업자 비율이 6%에 불과하며,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약 30%를 차지하였다. 세대3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없었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약 7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종교도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세대1은 무교의 비율이 37%인데 비해 세대2는 40%, 세대3은 54%에 달한다. 불교의 비율은 세대1에서 28%, 세대2에서 19%, 세대3에서 7%이다. 기독교의 비율은 세대1에서 29%, 세대2에서 35%, 세대3에서 37%를 차지하였다. 세대가 낮아질수록 무교의 비율은 높고, 불교의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지역도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만 16세에 살던 곳이 읍면지역인 경우 농어촌 출신으로 보았는데, 세대1에서는 농어촌 출신이 46%, 세대2에서는 37%, 세대3에서는 15%로 세대가 낮아질수록 농어촌 출신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로 보았을 때 도시화의 정도는 세대2와 세대3 사이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변수의 분포 차이는 세대의 서로 다른 경험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차이

〈표 2〉 응답자의 세대 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대1 (N = 103)		세대2 (N = 215)		세대3 (N = 182)	
	연령 범위(평균연령)	출생 연도	연령 범위(평균연령)	출생 연도	연령 범위(평균연령)	출생 연도
성별						
남성	51명	(49.51%)	109명	(50.70%)	90명	(49.45%)
여성	52명	(50.49%)	106명	(49.30%)	92명	(50.50%)
교육수준						
초졸이하	15명	(14.56%)	-	-	-	-
중졸	26명	(25.24%)	13명	(6.05%)	-	-
고졸	56명	(54.57%)	137명	(63.72%)	53명	(29.12%)
대졸이상	6명	(5.83%)	65명	(30.23%)	129명	(70.88%)
종교						
무교	38명	(36.89%)	86명	(40.00%)	99명	(54.40%)
불교	29명	(28.16%)	40명	(18.60%)	13명	(7.14%)
기독교	30명	(29.13%)	76명	(35.35%)	67명	(36.81%)
천주교	6명	(5.83%)	12명	(5.58%)	3명	(1.65%)
기타	-	-	1명	(0.47%)	-	-
성장지역						
농촌	49명	(45.57%)	79명	(36.74%)	27명	(14.84%)
도시	54명	(52.43%)	136명	(63.26%)	155명	(85.16%)

〈표 3〉 세대 별 가족의례 경험 비교 (단위 %)

	세대 1 (N = 103)	세대 2 (N = 208)	세대 3 (N = 104)	chi2
출산 관련				
태교	52.43a	61.54a	85.58b	27.70***
미역국	81.55	78.85	85.58	2.07
삼칠일	65.05	54.81	58.65	2.98
백일	72.82a	88.46b	86.54b	13.23**
돌잔치	92.23a	99.52b	90.38a	16.43***
제사				
제사 여부	80.58a	75.81a	60.99b	15.96***
제사범위				
조부모	68.67a	61.35a	81.08b	12.07**
증조부모	44.58	36.20	45.95	3.11
4대조	18.07a	7.36b	4.50b	11.66**
시제	24.10a	13.50b	4.50b	15.97***
명절				8.29
큰집모이기	50.49	40.47	35.71	-
우리식구만	49.51	55.81	60.44	-

\*  $p < .05$ ; \*\*  $p < .01$ ; \*\*\*  $p < .001$

를 설명할 때, 이러한 배경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IV. 연구 결과

##### 1. 가족의례의 세대 별 비교

세대 별로 가족의례 준수 경험을 비교한 연구문제1의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있다. 세대가 낮을수록 자녀를 임신 하였을 때 태교를 시행했다고 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세대1의 경우 약 52%만이 태교를 했다고 한 것에 비해, 세대2는 62%, 세대3은 86%가 태교를 하였다고 하였다. 태교에 대한 관심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전통적인 태교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구세대보다 태교에 관심을 더 가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후 미역국을 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각 세대가 다 거의 8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출산 후 삼칠일 동안 산모가 출입을 삼가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전통에도 세대를 불문하고 약 55-65%의 응답자가 그렇게 했다고 응답하여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의례임을 보여주었다. 자녀 출산 후 백일을 기념했는지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하였지만 그 비율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대1에서는 약 73%, 세대2에서는 약 88%, 세대3에서는 87%의 응답자가 백일잔치를 했다고 하여 세대1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출산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수준의 세대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돌잔치의 경

〈표 4〉 배경 변수 통제 후 세대 별 가족의례 경험 비교

	세대 2 (N = 208)	세대 3 (N = 104)	세대2와 세대3 차이
출산 관련			
태교	.43	1.70***	15.40***
미역국	.23	.89*	3.65
삼칠일	-.18	-.01	.46
백일	1.02**	.83	.27
돌잔치	2.68*	-.59	9.27**
제사			
제사 여부	-.16	-.94*	8.78**
제사범위			
조부모	-.10	1.03*	12.66***
증조부모	-.24	.31	3.91*
4대조	-1.08*	-1.66*	1.02
시제	-.78*	-2.13**	6.42*
명절			
큰집모이기	-.30	-.49	0.72

주: 응답자의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을 통제한 이후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우, 응답자의 90% 이상이 돌잔치를 했다고 하여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가정에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세대2에서 가장 높았다.

제사의 경우에는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세대1의 경우 약 81%가 제사를 모신다고 한 것에 비해 세대2에서는 76%, 세대3에서는 61%만이 제사를 모신다고 하였다. 제사는 응답자의 가정에서 모시는 것 뿐 아니라 부모나 종가에서 모시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질문하였다. 제사의 범위에는 돌아가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4대조까지 질문하였는데 부모의 경우에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응답자가 많아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제사를 모시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알아본 결과, 60-80%의 응답자들이 조부모의 제사를, 약 40%정도의 응답자들이 증조부의 제사를 모신다고 하였다. 세대3의 경우 세대2보다 조부모 제사 비율이 더 높는데, 이는 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가 높아 부모 제사대신 조부모 제사를 모시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대조 제사나 시제의 경우에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생활이 공유되지 못했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점점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보내는 방식을 세대 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세대가 낮을수록 큰댁에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비율은 낮아지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명절을 보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의례 경험의 세대 간 차이는 각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 등의 배경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을 통제변수로 한 로지스틱 모형으로 가족의례 경험을 세대 별로 비교해 보았다. 〈표 4〉는 세대1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세대2와 세

〈표 5〉 세대 별 가족가치관 점수 비교

	세대 1 (N = 103)	세대 2 (N = 215)	세대 3 (N = 182)
평균(SD)	35.10(.41)a	33.85(.26)b	33.07(.32)c
통제 전 평균 차이		-1.24(.49)*	-2.03(.50)**
통제 후 평균 차이		-.56(.54)	-.93(.63)

주: a:b,  $p < .001$ ; a, b:  $c = .057$

\*  $p < .05$ ; \*\*  $p < .01$

대3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비교하고, 다시 세대2와 세대3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각 세대의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을 통제한 이후의 결과도 〈표 3〉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출산 후 미역국을 먹었는지 여부에서 세대1과 세대3의 차이가 유의하게 않았던 것이 배경 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시제를 모시는지에 있어서도 세대2와 세대3의 차이가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달랐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표 3〉에서 나타난 세대 간의 차이가, 세대의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의 차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세대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가치관과 가족의례: 세대 내 비교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 관련 생활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족가치관 평균점수를 세대 별로 비교하였다. 가족가치관 변수의 척도 범위는 10-50점이며, 중간값은 30점이다. 본 응답자들의 응답 범위는 22-47점, 평균은 33.82점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배경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세대1의 가족가치관 점수는 세대2나 세대3보다 더 높게 나타나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2와 세대3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3.64, df = 1, p = .057$ ). 그

런데 앞서와 같이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을 통제한 후의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세대 간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가족의례의 세대 차이와는 달리, 가족가치관의 세대 차이는 배경변수에 의해 매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세대마다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다르고 대중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문제2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있다. 〈표 4〉에서 살펴 보았듯이 가족의례의 준수 경험은 세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교육수준과 같은 배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기서는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을 모두 통제한 후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가치관은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가족의례 경험과 관련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과 영향은 세대에 따라 다르다. 가장 연령이 높은 탈식민지 세대1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높은 사람들이 출산 후 삼칠일 지키기와 시제 모시기 경험 확률이 더 높았다. 산업화세대와 386세대를 대표하는 세대2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태교, 삼칠일, 백일 관련 의례를 전통적으로 준수하는 확률이 더

〈표 6〉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세대 1(만 59-68세)		세대 2(만 39-58세)		세대 3(만 38세 이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태교	.09	(.06)	.12	(.04)**	.26	(.12)*
미역국	.13	(.09)	.03	(.06)	.10	(.08)
삼칠일	.16	(.06)*	.15	(.05)**	.06	(.05)
백일	-.00	(.06)	.12	(.06)*	-.05	(.07)
돌	.08	(.10)	-.04	(.34)	-.09	(.08)
제사	.07	(.07)	.03	(.05)	-.01	(.04)
제사_조부모	.07	(.07)	.10	(.05)*	-.03	(.07)
제사_증조부모	.05	(.07)	.02	(.04)	.02	(.05)
제사_사대	-.03	(.08)	-.13	(.08)	.04	(.12)
제사_시제	.18	(.09)*	.08	(.07)	-.14	(.14)
명절	.03	(.05)	-.06	(.03)	.00	(.04)

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학재학이상)을 가변수로 하고 세대 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준거집단으로 함), 종교(가변수로 하고 무교를 준거집단으로 함), 성장지역을 통제한 후 가족가치관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만 제시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높고, 조부모 제사를 모시는 확률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만 38세 이하 정보화세대를 대표하는 세대3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태교를 한 확률이 높았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의례와 관련된 생활문화의 준수 경험이 세대에 따라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 경험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그 준거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중심의 세대 구분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세대에 관계없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가족에 의해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생활문화는 출산 관련 문화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약 90%의 응답자들은 자녀의 첫 생일인 돌을 기념하여 돌잔치를 하였으며, 약 80%의 응답자들은 백일을 기념하였다. 세대에 따라 경제적인 생활수준과 상업주의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겠지만 백일이나 돌을 기념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관습과 전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세대(1966-67년 출생코호트)와 할머니세대(1938-39년 출생코호트)의 출생의례를 비교한 민하영과 유안진(2003a, 2003b, 2004)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민하영과 유안진의 연구에서 어머니세대는 본 연구의 세대2에 해당하고, 할머니세대는 세대1보다 약간 더 연령이 높는데, 이 두 세대에서도 돌잔치를 한 비율은 각각 92%와 95%였다. 세대가 낮을수록 태교를 하였다는 비율도 증가하여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세대일수록 태교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태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태교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세대를 불문하고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세대에 따른 생활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족의례이다. 세대1의 경우 약 80%의 응답자가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대다수의 가족에서 제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 반면, 세대2에서는 76%, 세대3에서는 61%로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모시는 경우와 부모 혹은 조부모, 큰집에서 모시는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한 수치이다. 제사 중에서도 4대조 제사나 시제의 경우에는 세대1에서도 지켜지는 비율이 약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세대 간 차이도 더 명확하게 드러

났다. 또한 제사를 모시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부모와 조부모까지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제사를 모신다는 점에서는 아직 제사가 중요한 가족의례임이 분명하지만, 출산 관련 의례와 비교해볼 때 제사는 생활문화로서의 경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이나 추석 같은 중요한 민속명절에 큰집에 모이는 전통도 세대가 낮을수록 다소 약화되고, 대신 우리 식구들끼리만 모여 보내는 경향이다. 여기서 우리 식구란 세대에 따라 핵가족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조사의 응답 선택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부 응답자들은 기타 응답으로 명절에 남편과 부인의 부모를 모두 방문한다고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sup>2)</sup>. 응답자의 종가 여부나 형제자매의 수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명절을 보내는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가족의례와 관련된 생활문화 중에서 교육수준, 종교, 성장지역의 배경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삼칠일 지키기와 명절 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문화 중 어떤 부분은 집단으로서의 세대 차이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이나 전통과 더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명절을 보내는 방법도 세대 간 차이보다는 가족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가족의 생활문화가 유지되거나 변화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대가 낮아질수록 무조건 전통 생활문화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거나 발전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세대에 관계없이 개별 가족의 문화나 개인적 특성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생활문화의 영역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 거주하는 20대-60대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경신(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여성들이 한국여성보다 일괄적으로 더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세대 별로 가족가치관이 약화된긴 하지만 효 의식 같은 영역은 세대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 한인들의 생활문화는 직선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문화의 의식적 측면으로서의 가족가치관이 가족의례 관련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관계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세대1의 생활문화에서는 삼칠일, 시제 등 다

2) 양가를 모두 방문한다는 응답은 세대 1에서나 발견되지 않았고, 세대 2와 3에서 각각 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일부로 명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처가를 방문하는 사례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어 이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소 엄격하고 보편성이 낮은 영역에서 가족가치관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누구나 다 준수하는 의례나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가족가치관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전통적 가족가치관 성향이 높을수록 출산 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삼칠일 관행이나 5대조 이상의 조상제사를 산소에서 모시는 시제를 지킬 확률이 더 높았다. 세대2의 생활문화는 출산 관련 의례에서 가족가치관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관련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전통적 가족가치관 성향이 높을수록 태교, 삼칠일, 백일잔치 등의 생활문화를 준수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조부모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세대3은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높을수록 태교를 할 확률이 더 높은 것 외에 다른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족가치관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세대2이다. 가족의례에서도 세대2의 경험이 세대1이나 세대3에 비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와 386세대인 세대2가 전통적인 가치관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탈식민지 세대인 세대1은 전반적으로 가족가치관 수준이 높고 가족가치관에 따라 의례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 반면, 세대2는 가족가치관 평균 점수는 세대1보다 낮지만 개인의 가족가치관 수준이 의례 행위와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대2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는 변화 시기에 태어나 성장한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에서 가족가치관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급격한 사회적 변동의 시기일수록 개인적 수준에서 내면화된 가치관이 행동과 경험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족의례 중에서 공식적인 통과 의례 대신 일상적인 가족의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례, 상례와 같은 중요한 의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응답 대상이 20-60대 기혼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세대3의 경우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과 비슷하였다. 다시 말해 평균보다 다소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조사대상자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족의례와 생활문화가 지역적 편차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서울지역의 응답자들만을 조사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향후 전국적 규모의 표집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생활문화 속에 보편성과 변화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녀와 관련된 의례와 생활문화는 삼칠일을 제외하고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례는 현재 절반 이상의 가족이 지키고 있으나 그 비율은 세대가 낮아질수록 낮아지고, 특히 4대조나 시제와 같은

제례 문화는 더 명확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생활문화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생활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의 공존하는 생활문화의 전형성과 다양성을 파악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현재 우리 생활문화의 전형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의 다양성이 국경을 넘는 이주민에 의해 촉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문화의 역동성은 이미 우리 사회와 문화에 내재되어 있다.

## ■ 참고문헌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경신(2006). 한국여성과 조선족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3-50.
- 김경신(2010). 한국여성과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 연구: 코호트 및 개인사 분석을 통한 지속과 변화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271-296.
- 민하영, 유안진(2003a).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 의례 및 아기 행사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14(3), 45-56.
- 민하영, 유안진(2003b).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할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4), 157-168.
- 민하영, 유안진(2004).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 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 간 비교 연구: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2), 55-68.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문학**, 24(2), 47-78.
- 박재홍(2008).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2008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77-98.
-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서울: 교문사.
- 여성가족부(2005). **전국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옥선화(2005).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생활문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재개발위원회. **생활과학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옥선화, 남영주, 성미애, 신기영(2001). 재미동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가족주의 가치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29.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유안진(1994).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안진, 민하영(2000). 출산 풍속에서 모-조모의 세대간 차

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8), 99-109.

은기수(2006). 가족가치의 세대 비교. **가족과 문화**, 18(3), 1-31.

접 수 일 : 2010년 12월 2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4일